

흑두루미 반기던 순천시 'AI 딜레마'

서식지 조성·먹이주기 등 노력에 일본 등서 1만 여마리 찾아와 폐사체서 고병원성 확진...AI 확산 진원지·집단 감염 반복 우려

순천만에서 잇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흑두루미의 폐사체가 발견되고, 이 중 일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까지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수년동안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조성 사업을 해 왔던 터라 더욱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50여마리가 폐사했으며, 이 중 8마리에게서 고병원성인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올해 순천만에는 이례적으로 예년의 3배에 달하는 흑두루미가 찾아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천만에는 매년 3000~4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나는데, 올해는 지난달 21일 기준 9800여마리가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흑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인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 시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자 이를 피해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즈미시에서는 최근 AI 확산

으로 10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흑두루미 집단 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철새지킴이' 활동을 해 왔던 터라 이번 AI 확산으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순천시는 흑두루미 먹이인 친환경 쌀을 순천만 곳곳에 살포하는 등 방법으로 이곳을 매년 3000~4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오는 월동지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순천만이 흑두루미 집단 서식지로서 국내 AI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순천시는 당장 5일에도 순천만 일대에서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흑두루미가 앞으로도 해마다 순천만으로 몰려든다면 AI 집단 감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이에 순천시는 "흑두루미는 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AI 감염을 피해 순천만으로 도망쳐온 피해자에 가깝다"며 "흑두루미가 찾아오는 것은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오히려 순천만이 흑두루미의 활동 반경을 좁혀 전국적인 AI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는 갯벌과 인근 농경지를 오갈 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AI가 확산할 우려를 오히려 줄인다는 것이다.

또 갑자기 먹이 주기 활동을 멈춘다면 AI에 감염된 흑두루미가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AI를 추가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흑시 모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순천만 탐조 코스, 체험선 코스 등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했다"며 "현장 예찰을 강화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흑두루미를 빠르게 포획하고 검사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류 전문가인 이기섭 박사(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는 "AI는 철새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감염·전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만은 물이 자주 순환되는 갯벌이라 AI가 대량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순천만 내 AI에 오염된 물이 있진 않은지 지속 체크하고, 오리나 갈매기 등 다른 종과 서식지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축복의 불빛 2022 빛고을성탄문화축제 성탄트리 점화식이 열린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AI 공포'

장흥·나주·고흥 고병원성 확진...무안·함평 검사 중 철새 도래 많고 추가 발병 불안감 경제 악영향 우려

전국 최대 닭·오리 사육 지역인 전남에 조류 인플루엔자(AI) 공포가 휩쓸고 있다. 장흥·나주·고흥 등 전남 7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데다, 무안·함평에서도 H5형 AI가 발병하면서 한 달도 안돼 134만 3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철새들이 빨리 찾아온데다, 폐사체·철새 분변 등에서의 감염률(35%)도 예년(12%)에 견줘 2배 이상 높아 확산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 농가가 초비상 상황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 종오리농장과 함평군 함평읍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가 발생, 반경 1km 이내 가금류 52만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앞서, 나주시 동강면(3일), 반남면(2일)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지역은 장흥(부산면·11월 16일), 고흥(동강면·11월 26일), 나주(공산면 3곳·반남면 1곳·동강면 1곳, 11월 23·29일, 12월 2·3일) 등 3개 지역이다. 무안·함평의 경우 2·3일 이내로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된다.

무안·함평 농장에서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총복(9곳)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이 된다. 이렇게 발생한 AI로 살처분한 닭·오리만 134만 3000마리에 이른다.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12월로 접어들면서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철새 도래 시기가 빠르고 많은데다, 순천만·강진만·영암호 등 야생조류에게서 12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 위험성도 높아 추가 발병에 대

한 불안감이 커지는 형편이다.

전국 1위(오리), 전국 5위(닭) 사육지역인 전남에서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나주(오리 103만 7000마리·닭 451만8000마리)와 영암(오리 62만 5000마리·닭 251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병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주·영암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방역 조치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582개 전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로 정했던 나주 방역지역을 반경 12km로 넓히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가뭄 극복 위해" 전남 골프장 4곳 하천수 안쓴다

유례없는 광주·전남지역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하천의 물을 끌어 쓰는 전남지역 4곳의 골프장이 올 겨울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의 하천수를 다량 사용하는 시설인 전남 4곳의 골프장과 협의해 동절기(12월~2월) 동안 하천수 취수를 중단하기로

협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엘리체CC(함평), 해피니스CC(나주), 레이나CC(담양), JNJ골프리조트(장흥) 등 4곳의 골프장은 하루 8600㎥의 하천수를 끌어다 쓸 수도도록 허가 받았지만, 물 절약을 위해 취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4곳의 골프장 시설관리자들은 지난달

30일 대책회의에서 지하수와 자체 연못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수 절약 및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용수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768mm, 909mm로 예년의 58.3%, 64.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복구, 상습 침수 '서방천 배수구역' 정비 나서

광주시 복구가 상습 침수 구역인 북구 중흥동·신안동·문흥동 일대의 '서방천 배수구역' 정비에 나선다.

북구는 정부가 주관한 '2022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서방천 배수구역이 선정돼 국·시비 15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로와 자동차 뿐 아니라 주택과 상가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하수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지자체 38곳이 최종 선정됐다.

북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구비를 포함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방천 배수구역(0.59km)을 대상으로 빗물 펌프장 설치 1곳과 방류관로 1.0km 등을 내년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부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인 문흥동 상당 및 북구청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 서방천 배수구역 침수피해 예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청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